

17-18세기 조선의 침(鍼), 그 종류와 형태

2016-06-23

한국한의학연구원

오준호



스기야마 와이치 (杉山和一, 1610-1694)



출처: 筑波大学附属学校教育局



침구발수(鍼灸拔粹)의 관침법(管鍼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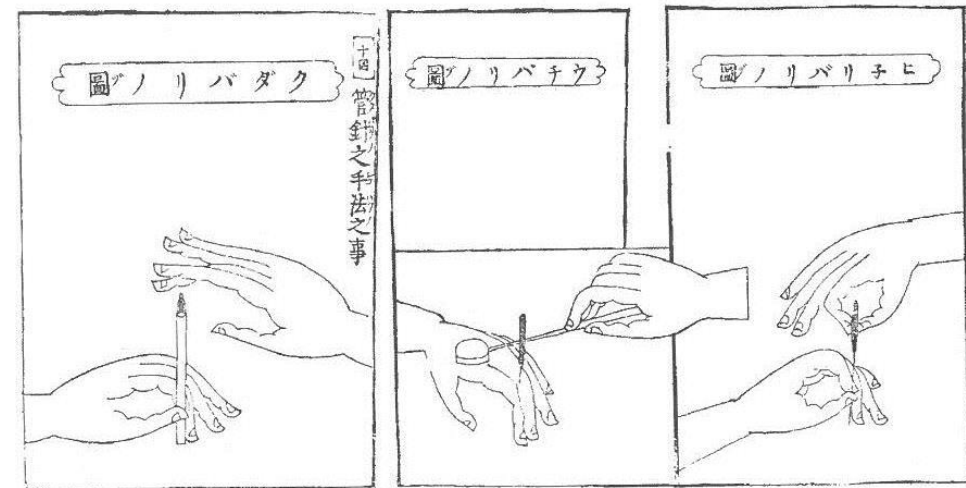


図 52 「針灸拔粹」に描かれた撚針・打針・管針の図

출처: 針灸の歴史

1777년(정조1) 이갑(李岬, 1737~1795)

“침술(鍼術)에도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에 비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매우 아파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침은 너무 가볍고 또 뽀족하다. 청(淸)의 것은 실상 본 풍수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이다.”

“太醫院 鍼術尤無善手，其鍼比我國之製甚鈍，故受鍼者頗以爲苦。我人亦笑之，然我國鍼甚輕且尖，而此則實準於本分數而然矣。” 『燕行記事』 「聞見雜記 上」



출처 : 清代及近现代传世针灸针具实物举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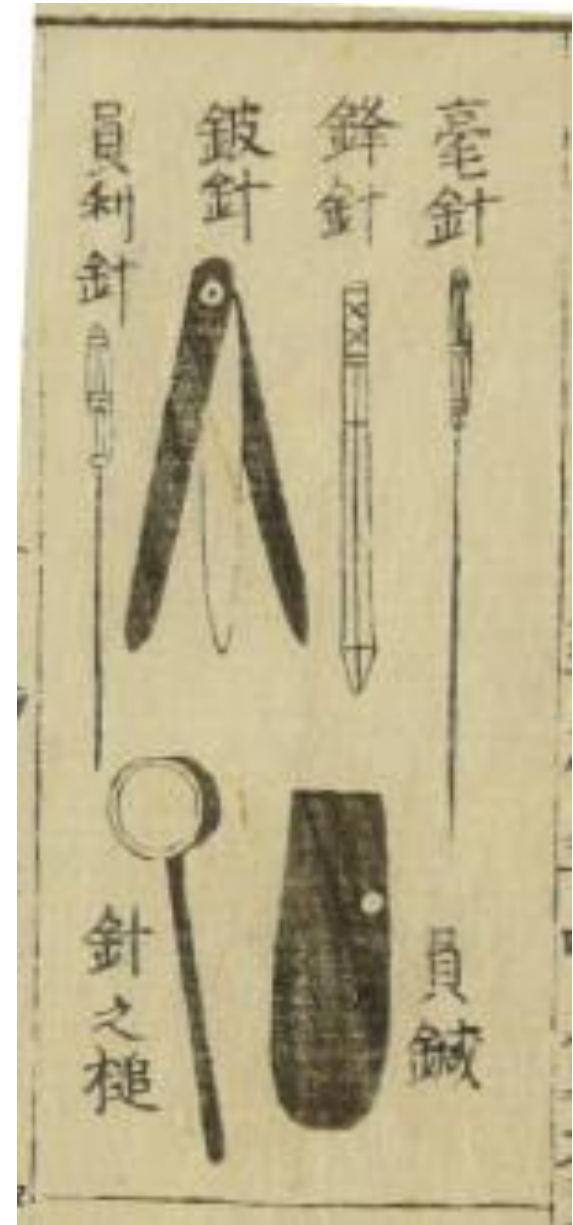


출처 : 从考古发掘和明清传世实物看九针的形制演变

1748년(영조24) 의관 조덕조

“침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호침(毫鍼)만을 거론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끝이 가는 침으로 그것을 소통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且鍼之類非止一二, 而獨舉毫鍼何也., 其能以尖細之鍼, 通而行之乎.” 『朝鮮筆談』 坤.



출처 : 화한삼재도회 1712

구침(九鍼)

九鍼式圖並九鍼主治法歌

一曰鑱鍼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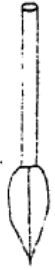
二曰員鍼式圖



三曰鍤鍼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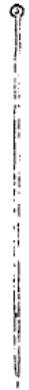
四曰鋒鍼式圖



五曰鈹鍼式圖



六曰員利鍼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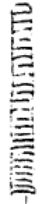
七曰毫鍼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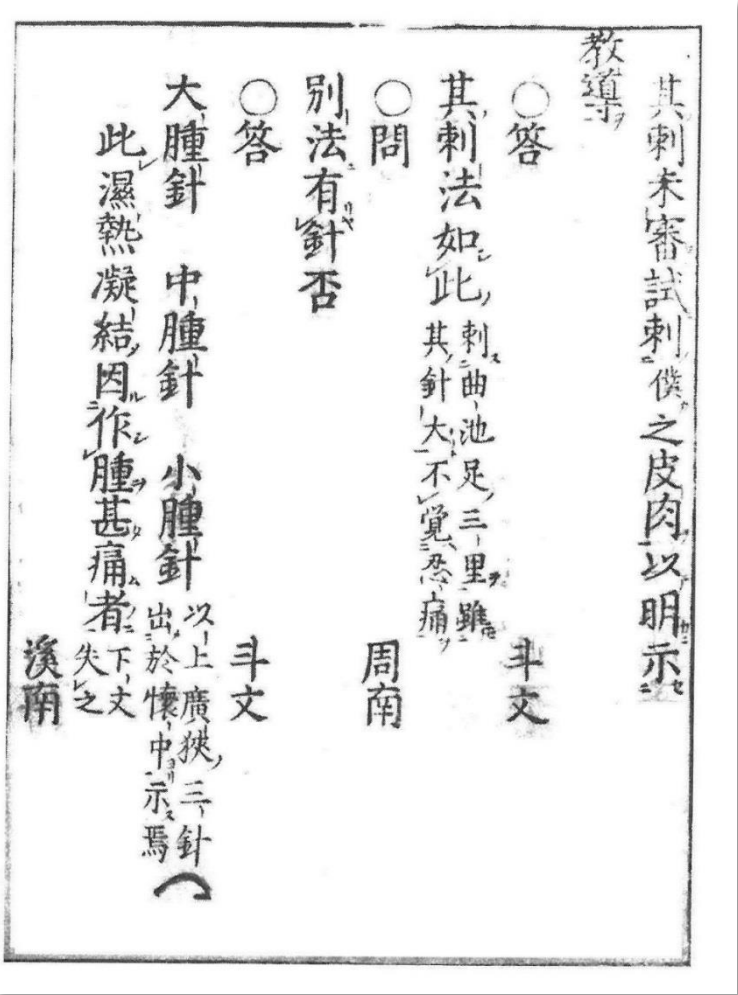
八曰長鍼式圖



九曰大鍼式圖



1711년(숙종37) 제8차 신묘사행



○기공께 삼가 받들어 아뢰입니다. 제 성은 무라카미이고, 자는 슈난(周南)이며, 득응 재가 자호로, 케이난(溪南)의 큰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자법은 호침(毫針)의 종류만 쓸 줄 알고, 시침(鍤鍼)을 놓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 자법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 두문. 말이 통하지 않음을 오직 한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대체로 호미침(毫微針)과 세삼릉침(細三稜針)은 모두 왼손 엄지손가락을 써서 혈을 눌러 찾고, 그 손톱 바깥쪽 끝을 취해 그곳을 찌릅니다.

○물음 슈난. 그 자법이 자세하지 않으니, 시험 삼아 제 몸에 침을 놓아서 가르침을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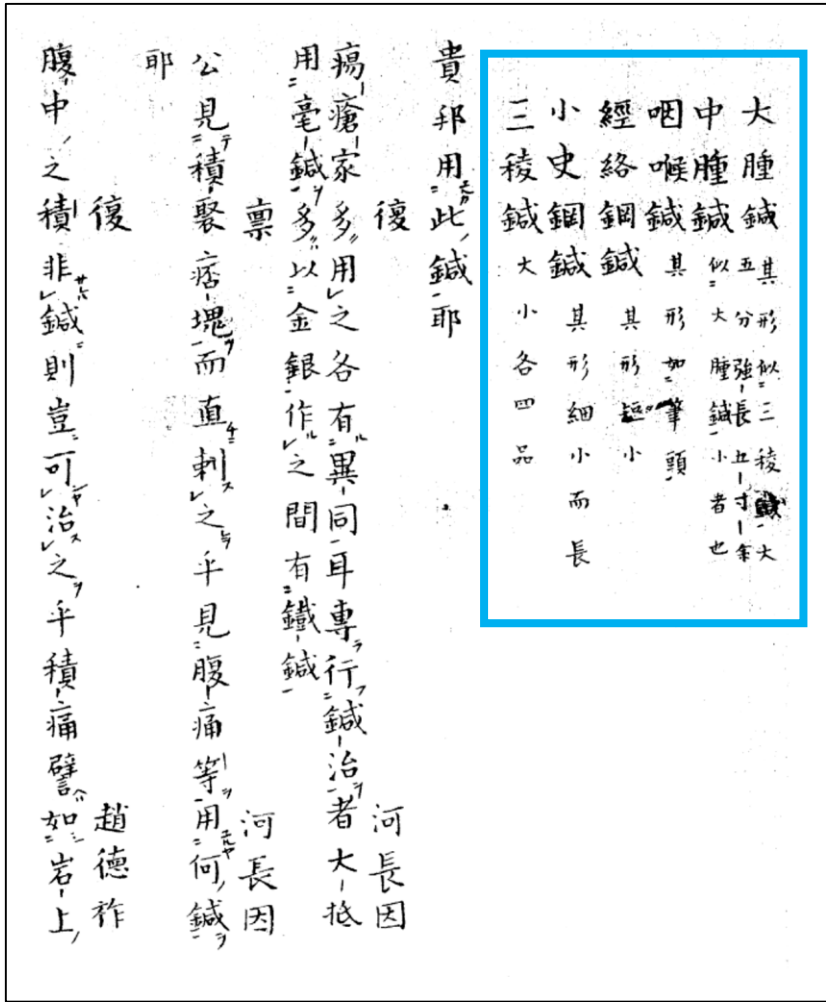
☞ ○대답 두문. 그 자법은 이와 같습니다. (곡지·족삼리에 침을 놓았는데, 비록 그 침은 컷지만 참을 만한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다.)

○물음 슈난. 다른 침법이 있습니까.

☞ ○대답 두문. 대종침, 중종침, 소종침. (이상 너비가 다른 3가지 침을 품 속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것은 습열(濕熱)이 응결되어 종기가 생겨 매우 아플 때 씁니다. (아래 글은 잃어버렸다.)

양동 창화후록(兩東唱和後錄, 1711)

1748년(영조24) 제10차 무진사행



6월 5일 …….

아림 가와무라 순코(河村春恒). “그대는 지금 침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대의 침을 보고 싶습니다.”

☞ 대답 조덕조. “가져가십시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귀국의 철이 품질이 좋으니 장인에게 침을 만들게 하시려거든 침본으로 삼게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9가지 침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 **대종침(大腫鍼)** [모양이 삼릉침과 비슷하고 크기는 5푼 남짓, 길이는 5치 남짓이다.], **중종침(中腫鍼)** [대종침과 비슷한데, 작다.], **인후침(咽喉鍼)** [그 모양이 마치 붓끝과 같다.], **경락강침(經絡鋼鍼)** [그 모양이 짧고 작다.], **소사강침(小史鋼鍼)** [그 모양이 가늘고 작으며 길다.], **삼릉침(三稜鍼)** [크기별로 4가지가 있다.], “그대 나라에서도 이러한 침을 쓰십니까?”

아림 가와무라 순코. “창양(瘡瘍)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각기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을 뿐입니다. 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대개 호침(毫鍼)을 쓰는데,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간혹 철로 만든 침이 있습니다.”

조선필담(朝鮮筆談, 1748)



대답(조승수). …… 또 침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호침만을 거론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혹시 침이 동쪽지방에 이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사방의 지역의 치료가 각기 다르지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원침(圓鍼)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이가 있고, 병에 얇고 깊은 것이 있으며, 경혈에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끝이 가는 침으로 그것을 소통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1764년(영조 40) 제11차 갑신사행

貴邦已傳而行之則君詳其鍼形願示諸○纂菴耶
 從懷中出三鍼曰夫去破腫鍼之極小者而有太
 中小三法○此是三稜鍼示諸經絡而此鍼亦大者
 而有大小三法○此是定圓鍼也此則中者而有太
 中小三法合爲九鍼矣○東原曰九鍼論載九鍼之
 形各有其法而治其病今視君之所示惟是三鍼分
 成九法蓋以差悖靈樞之法抑有他之所由而言之
 耶不審○○○纂菴重不答
 ○東原又問金匱玉函具論四百四病也是雖則醫
 家峻要興后世而惟詳其四種未嘗其病親親之所

양동투어(兩東鬪語 坤, 1764)

○동원 요코타 준타(橫田準大)이 물었다. “…… 선생의 나라에는 일찍이 이 구침의 법이 모두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과 같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선조에 향빙사로 공의 선관으로 오신 조송수 선생이 ……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선생의 나라에서는 원침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 원침이 전해졌으면 다른 침들도 전해졌습니까? 제가 구침의 자법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전하여져 행하는 것이 한 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나라에는 이미 원침이 있고 또한 다른 침들도 사용되고 있으며 선생께서도 그 사용법을 아시며 마침 가지고 오셨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 전하고자 합니다.” ……

☞ ○모암 이좌국이 즉시 품에서 3가지 침을 꺼내서 말하였다. “큰 것은 파종침(破腫鍼) 가운데 매우 작은 것으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릉침(三稜鍼)으로 경락을 취하는데 이침도 큰 것이나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침은 원침(圓鍼)입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합하여 9침이 됩니다.”

☞ ○동원이 말했다. “『구침론』에는 구침의 형태와 각각의 사용법과 치료하는 병이 실려 있는데, 이제 선생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 오직 세 가지 침이 나뉘어 9가지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영추』의 법과 어긋나니 행여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암이 거듭 대답하지 않았다.

원침(圓鍼)

파종침(破腫鍼)

삼릉침(三稜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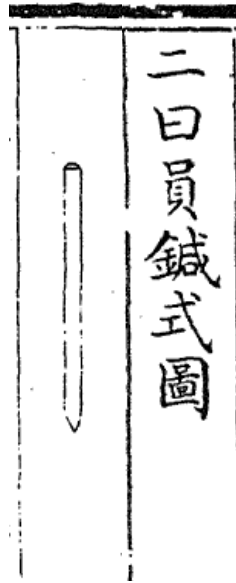
원침(圓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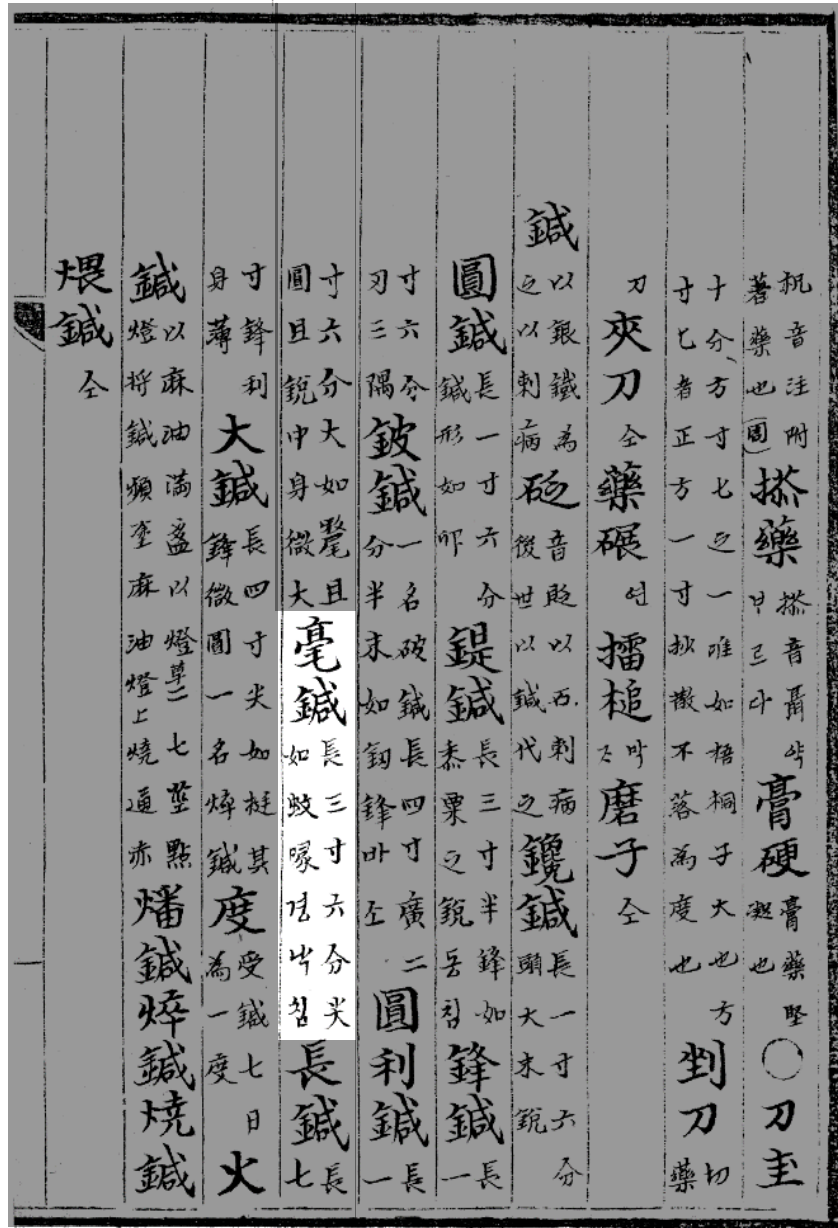
○모암 이좌국이 즉시 품에서 3가지 침을 꺼내서 말하였다. “큰 것은 파종침(破腫鍼) 가운데 매우 작은 것으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릉침(三稜鍼)으로 경락을 취하는데 이침도 큰 것이나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침은 원침(圓鍼)입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합하여 9침이 됩니다.”

대답(조승수). …… 또 침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호침만을 거론한 것은 어째서 입니까. 혹시 침이 동쪽지방에 이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사방의 지역의 치료가 각기 다르지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원침(圓鍼)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이가 있고, 병에 얇고 깊은 것이 있으며, 경혈에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끝이 가는 침으로 그것을 소통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두문. 그 자법은 이와 같습니다. (곡지·족삼리에 침을 놓았는데, 비록 그 침은 컸지만 참을 만한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다.)



경락침



재물보 (179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내가, 신노인이 침을 놓아 치료하는 것을 보니, 원리침은 순금으로 가늘기가 겨에 붙은 까끄라기 같고, 삼릉침(三稜針)은 날은 쇠이고 자루는 금으로 만들어져서 보통의 침과는 달랐다.

내가 그에 대해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스승계선 침을 참 잘 놓았다네. 언젠가 일본에 가서 병을 치료한 적이 있으셨지. 그 때 한 일본 의원이 자기들보다 낫다며 스승께 이 침을 선물로 주었느니라. ……”

원리침

“便毒가랏듯, ……，以圓鍼貫刺其核，灸三七壯，永差。”『鍼灸經驗方』「脚膝」

“瘰癧，初發未膿核小時，艾灸，圓針刺之。” 필사본 『舟村新方』「腫」

“以風濕膝下有內痛不仁者，三里兩穴，以經絡針三分，兩穴同時，各灸七壯。”『實驗單方』「膝脛部」

“瘰癧連珠結核未潰者，以經絡針刺之，用百合生者，爛擣付之。”『宜彙』「瘰癧」

“手足筋攣蹇澁，以圓利鍼，貫刺其筋四五處，後令人強扶病人，病處伸者屈之，屈者伸之，以差爲度，神效”『鍼灸經驗方』「脚膝」

“圓利針刺之，爲妙。”『醫彙』「瘰癧」



한독의학박물관 소장
(출처 : 조선왕실의 생로병사 질병에 맞서다 도록)



허준의학박물관 소장
(출처 : 허준의학박물관 도록)

종침(腫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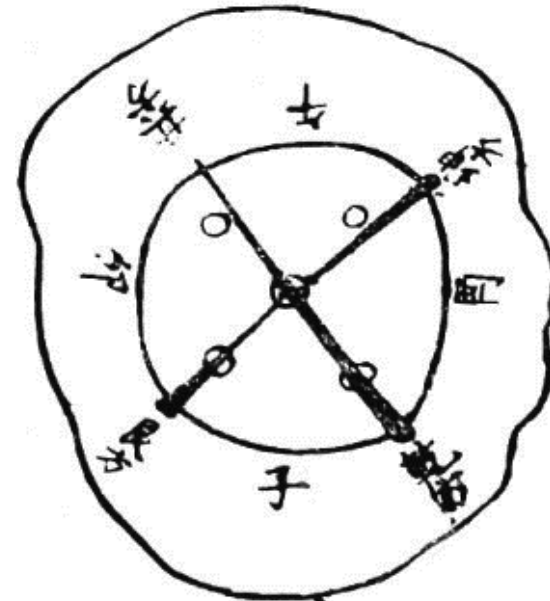


16세기 치종지남



腫中針破如十字形又上下腫頭一二處針刺鋒向腫中

長腫形圖鍼破法



毒氣
燥發

卽為平復時公尚帶治腫教授未及出六
 特旨陞堂上癸丑 仁宣王后患髮際腫
 瘡根甚大肆毒症候日甌雖些少粥飲不
 御者數日 上命公入診公請以鍼破去
 瘡根 上甚難之入議於 慈殿而許之
 公遂以巨鍼劃破瘡根如川字樣長各四
 寸許 上侍於傍用 御手止之公不少

撓畫鍼法而出坐差備門外氣息未及定
 上自內呼公名而促之公不勝驚惶顛倒
 入伏 上教曰俄者 慈殿受鍼後卽進
 米飲矣喜動 龍顏公始知無他方敢定
 氣以出 平復後 特加嘉善卽拜同樞
 公還謂家人曰吾於今番減壽十年矣
 莊烈王后移御于於義宮久違豫設議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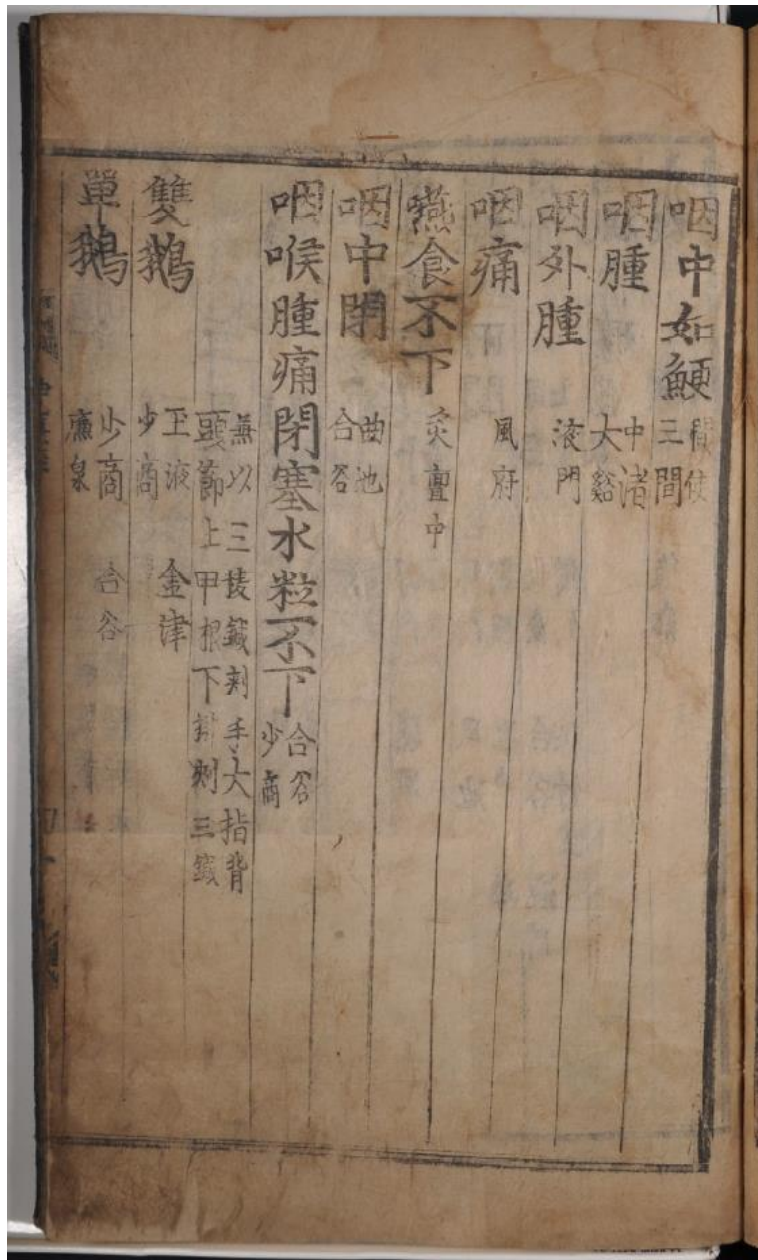
한독의학박물관 소장
(출처 : 조선왕실의 생로병사 질병에 맞서다 도록)



허준의학박물관 소장
(출처 : 허준의학박물관 도록)

삼릉침(三稜鍼)

인후침



목이 붓고 막힌 증상이 심한 경우.
가는 삼릉침(三稜針)을 붓대롱 속에 숨긴 채
이런저런 말로 주의를 돌리면서, 몰약(沒藥)
을 붓고 아픈 곳에 바른 후에 침을 찌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자가 두려워하므로 병
을 낫게 할 수 없다.

咽喉腫閉甚者.

以細三稜針藏於筆管中，戲言以沒藥點腫痺處，乃
刺之，否則病人恐懼不能愈疾.

『神應經』「咽喉部」

원침(圓鍼)

경락침

원리침

능침(稜鍼)

종침(腫鍼)

바소

삼릉침(三稜鍼)

인후침

長短圓稜異制

조광일의 의술은 고방으로 탕약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작은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다. 그 속에 동침(銅鍼)·철침(鐵鍼) 10여개가 있었는데, 길이가 길거[長]나 짧고[短] 모양이 둥글거[圓]나 모진[稜] 것이 서로 달랐다. 이것으로 옹저(癰疽)를 가르고 창유(瘡瘡)를 치료하며 어혈(瘀血)을 풀고 풍기(風氣)를 흠고 절뚝이는 이를 일으켜 세웠으니 바로 낫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침술에 정통하여 깨친 사람이었다.

“其術不治古方使湯藥，常以一小革囊，自隨，中有銅鐵針十餘，長短圓稜異制，以是決癰疽，治瘡瘡，通瘀隔，疎風氣，起跛癰，無不立應。蓋精於針，而得其解者也。”『耳溪集』卷18「傳、針隱趙生光一傳」

감사합니다.